

接 籬

김진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Jeobli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trace and to identify the meaning of *jeobli* 接籬. This word is found as one of the early costume terminologies of China. Later the *jeobli* was introduced to Koguryo.

The *jeobli* of China and Koguryo were included in this study.

Sources of information for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from the written records including visual information from ancient paintings and tomb paintings as well as figurins.

The results of important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jeobli* 接籬 was synonymous with the *cheobli* 蹠籬. Also it appeared that it was called *baikrosa* 白鶯絨.

It revealed that the word *jeobli* had different meanings. First, it was the name of a white hat which was worn by the people of Chin 晉 dynasty. It was a white felt hat made of white egret plumes and feathers.

Second, it was a dialect for *maqna*, a kind of a veil which was worn by the women of the Northern dynasty. Third, it meant the *chaikkun* 幘巾, a kind of knot coverings.

The *jeobli*, a kind of a white felt hat, was also used by the people of Koguryo. The *jeobli* of Koguryo was made of the pig hair from Malgal 靺鞨. It is considered that the shape of this white hat seems to be a kind of conical hat.

Also, it was found that the *jeobli* as the meaning of *chaik kun* 幘巾 was worn by the people of Kogure. It was a small white square hat. It was worn by the nobles.

Key words : *jeobli*, *cheobli*, *baikrosa*, a white hat, white egret plumes and feathers, *myukli*, *chaik kun*, the Chinese *jeobli*, the Koguroyoean *jeobli*.

I. 緒 論

接籬란 말은 中國의 古文獻에 나타나는 服飾用語이다. 이 말은 본래 中國 服飾用語로서 高句麗에도 流入되어 사용되었던 高句麗의 服飾用語이기도 하다. 그러나 接籬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깊이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接籬가 무엇인지 糾明하는 것을 시도하여 보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散在하는 接籬에 대한 資料를 찾아서 中國人들은 그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알아보고 高句麗의 接籬는 무엇이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高句麗의 接籬에 대한 정보도 中國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高句麗의 接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는 中國의 接籬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순서는 먼저 中國의 接離에 대하여 논하고 그 다음에 高句麗의 接離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이 연구의 자료는 주로 中國과 韓國의 문헌과古墳벽화 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제한된 지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시각적 자료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II. 接離

接離란 말은 宋書五行志, 晉書五行志와 翰苑蕃夷部 高麗條에 接離라고 기록되어 있다. 集韻에는 接離, 廣韻에는 接離, 韻會에는 接離로 기록되어 있으며 太平御覽 687卷에도 接離로 기록되어 있다.

正韻에서는 離字를 離, 離字로도 쓴다고 하였다. 集韻에서 離字는 간혹 離, 離로도 쓰고 보통 離로 쓴다고 하였다. 韻會에서 離字는 통상적으로 離로 쓴다고 하였고 中文大辭典에서 離字는 통상적으로 離, 離로 쓴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接離는 接離, 接離, 接離, 接離, 接離 등 여러 가지 리자가 문헌에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接離의 여러 리자는 어느 한 글자로 통일하여 쓰지 않고 그 글자들을 상호교환적으로 쓸 것임을 먼저 밝힌다. 이 연구의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原典에 있는 그대로 리자를 옮겨 적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接離의 많은 리자 중에서 離字를 택하여 이 연구의 제목으로 쓴 이유는 中國正史에 接離라고 나타나며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자 하는 高句麗의 接離에 관한 翰苑의 기록도 우연히 中國正史의 기록과 일치되게 接離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接離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이것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문헌에서 (먼저 離字와 離字의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韻會, 離字注에 接離, 白帽也.

集韻에 離, 接離, 白帽也.

廣韻에 離, 接離, 白帽.

韻會에 離, 接離, 白帽也.

集韻에 離, 接離, 白帽也 或作離.

大漢韓辭典의 離字에는 ① 접리관리, 사모리(接離, 帽也), ② 두건리(頭巾)이라 있다. 또 같은 사전에서 離字를 흰모자(白帽, 接離), 離字를 흰담 모자리(白毯帽子)라고 설명하였다. 廣解大玉篇에서는 離字를 흰모자리 白帽子라고 설명하였다.

接離가 무엇이나에 대한 위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接離는 白帽이다. 한국자료를 보면 白帽인 接離는 白毯帽子이다.

接離는 이미 魏時代부터 있어왔던 帽子로서 그것은 晉時代에 널리 유행하였고 그 時代의 사람들이 애용하였던 帽子였다.

晉書 山簡傳에는 山公의 白接離에 대한 일화가 담긴 兒童歌가 있었다고 하였다. 山公이 매번 놀러 외출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돌아올 때 머리에 白接離를 거꾸로 썼었다고 하는 내용이다.

太平御覽 687卷 9에서도 卍說을 인용하였는데 晉書 山簡傳과 같은 내용으로서 山公이 白接離를 거꾸로 썼었다는 것이다.

白色은 本來 中國人에게는 軍容이었고 國容이 아니었다. 晉書 卷二十七 五行志 上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魏武帝以天下凶, 資財之置始擬古皮弁裁縑帛爲白帽, 以易舊服, 傳玄曰白乃軍容, 非國容也, 干寶以爲縑素凶喪之象也.

白帽는 中國人이 이미 漢代부터 써왔던 것이다. 白帽은 魏武帝時에 資財가 결핍하여 縑帛을 가지고 古皮弁과 같게 만든 弁狀帽였다. 廣韻에도 帽, 土服, 狀如弁, 缺四角, 魏武帝製라고 있다. 南朝時代人들은 白色冠帽을 특별히 좋아하였는데 이것은 南朝時代 冠帽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白色冠帽는 皇帝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통용되었다. 皇帝의 首服은 白紗帽 卽 白紗高頂帽과 白冠이었다. 南朝時代의 白色冠帽는 白接離, 白綸巾, 白紗巾, 白疊巾, 白帽, 白帽, 白帽 등의 이름들을 볼 수 있다.

III. 睫離

睫離에 대한 기록은 郭璞의 爾雅釋鳥, 鷺春鉏注에서 鷺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찾아 볼 수 있다.

白鷺也, 頭翅背上, 皆有長翰毛, 今江東人取以爲睫離, 名之曰白鷺絨絨 一作箕

海物 略名記에서도 위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의 記事를 찾아 볼 수 있다. 海物 略名記에는 江東人 取白鷺頭頸上翰毛爲接籬曰白鷺裘, 或以紅翎間之라고 있다.

海物 略名記에서는 爾雅 注에 보이는 睫籬를 接籬로 바꿔 썼으며 紅翎에 대한 설명을 더하였다. 이로써 睫籬는 接籬이며 睫籬는 接籬라고도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事物 異名錄, 服飾 巾에도 庶物 異名錄, 接籬, 一名白鷺絨, 絨 一作裘라고 있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睫籬는 接籬이며 이것은 帽名으로서 白帽을 지칭한다. 睫籬 또는 接籬는 白鷺絨라는 別名도 가지고 있었다. 睫籬 또는 接籬는 晉時代에 江東人이 白鷺의 머리, 날개, 등, 목 등에 있는 翰毛를 취하여서 만들어 썼던 白帽이다. 혹은 紅翎을 翰毛 사이에 끼어서 睫籬 또는 接籬를 만들기도 하였다.

睫籬의 睫字가 接字로도 쓰인 까닭을 살펴보면 이 두 글자가 類音이기 때문이라고 類推할 수 있다. 睫字와 接字는 漢音으로 각각 몇 가지 서로 다른 音價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睫字와 接字는 音價가 同一한 것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두 글자는 의미 또한 同一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睫字는 接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睫字와 接字의 漢音을 보면 다음과 같다.

睫字 音 : 唐韻에 子葉切, 集韻에 卽涉切. 𪗇音切 chieh² 入葉.

接字 音 : 集韻에 疾葉切, 音捷. chieh² 入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睫籬의 睫字가 接字로도 나타나는 것은 이 두 글자의 音義가 同一한 것도 있어서 睫字는 接字로도 쓰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睫籬가 白鷺絨라고 하는 別名을 얻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睫籬가 白鷺의 翰毛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白鷺絨란 말의 의미를 찾아 봄으로써 睫籬란 白

帽의 특징과 白鷺絨란 別名이 붙은 이유도 함께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白鷺絨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하여 絨字의 뜻을 찾아보면 絨字는 喪服이란 뜻이 있지만 이 뜻은 白鷺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絨字의 또 다른 뜻에서 鷺와 관련이 있는 뜻을 찾아 볼 수 있다. 集韻에 絨, 編鷺羽爲衣라 있으며 또한 鷺首毛라고 있다.

위의 뜻을 가지고 白鷺絨의 뜻을 풀어본다면 白鷺絨란 말은 白鷺首毛라고 直譯할 수 있을 것이다.

白鷺絨란 別名은 睫籬가 白鷺의 翰毛로 만들어져서 그 帽가 白色이므로 白鷺의 首毛와 같이 보였기 때문에 붙은 別名일 것이다.

白鷺絨란 말에 있는 絨의 또 한가지 뜻인 編鷺羽爲衣로 보면 睫籬는 帽體 全部가 鷺羽로 編하여 만들어진 帽子여서 白鷺의 首毛 같이 희게 보인 帽子였다고 해석된다. 絨字의 뜻으로 보면 睫籬의 구성은 帽體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帽體의 틀을 풀이나 竹, 또는 다른 재료로 만든 帽子 위에다 白鷺의 羽毛를 가지고 모자를 위에 다져서 만들었거나 또는 엮거나 엮어서 만든 帽였을 것이다.

睫籬를 白鷺의 羽毛를 다져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編하여 만들었는지에 睫籬의 특징은 帽體 全體가 白色이어서 白鷺의 首毛 같았던 것에 있었다고 해석된다.

여기에서 睫籬 또는 接籬가 白帽라는 것, 白鷺의 羽毛를 睫籬의 재료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睫籬란 이름의 白帽가 어떤 모양의 帽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睫籬의 모양을 추정하여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면 古代 中國人은 一般的으로 帽와 巾을 구별할 때 頂圓인 것을 帽라 하고 頂方인 것을 巾이라 하였다. 晉書 輿服志에 而江左時, 野人已著帽. 人士亦往往以然, 但其頂圓耳, 後乃高其頂이라 있다. 本草綱目, 頭巾條에도 古以尺布裹頭爲巾, 後世以紗羅布葛縫合, 方者曰巾, 圓者曰帽라고 있다.

위의 기록으로 볼 때 晉代의 睫籬는 頂圓帽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晉代의 帽가 후에는 高頂으로 되었다고 하였는데 皇帝의 首服도 白紗 高頂帽였다. 그렇다면 晉 後代의 睫籬도 高頂帽形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帽라는 이름을 가진 머리쓰개는 帽簷이 있는 것, 帽裾이 있는 것 등 定하게 정해진 形制가

없었으므로 簪의 有無나 정확한 形制는 확실히 알 수 없다.

江左는 長江의 最下游之地를 말하며 一名 江東이라고도 한다. 卽 江左는 지금의 江蘇省 等地이다.

江左는 江東이므로 晉書에 보이는 江左는 郭璞의 爾雅注에 보이는 江東과 同一한 地域이다.

따라서 江左의 野人들과 士人들이 往往 착용하였었다는 晉書의 帽는 郭璞의 爾雅注에 보이는 睫欏와 같은 종류의 帽인 것으로 해석된다.

晉代에 江左의 野人들이 착용하고 士人들도 往往 착용하였던 帽는 단지 帽頂이 둥근 것만이었고 후에 帽屋이 높아졌다고 하였으니 江東人이 착용하였던 睫欏 즉 白帽도 圓頂帽였음이 확실하다.

睫欏의 뜻을 中文 大辭典에서는 두가지로 설명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睫欏의 한가지 뜻을 “白鷺也.”라고 설명하였는데, “白鷺也.”란 말은 “白鷺絨也”라고 설명되었어야 하였다. “白鷺也.”란 설명의 典據가 앞에서 인용된 바 있는 爾雅, 釋鳥, 鷺, 春, 鷺, 注에 있기 때문에 白鷺뒤에 絨字가 탈락된 것이 확실하다.

“白鷺也”란 말은 鷺에 대한 설명이지 睫欏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미 앞에서 논증된 바와 같이 睫欏의 別名이 白鷺絨이다. 睫欏는 卽 帽名으로서 白帽이지 白鷺란 鳥名이 아니다.

中文 大辭典에서 睫欏의 두 번째 뜻으로는 幘巾을 일컫는다고 하면서 駢雅 釋服食의 睫欏, 幘巾也. 라는 기록을 典據로 제시하였다.

元明間 通俗讀物 碎金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道服冠帽 가운데 接離巾이 보인다.¹⁾

여기의 接離巾은 幘巾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睫欏는 白帽 또는 白鷺絨란 뜻 외에 幘巾의 의미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睫欏의 의미로서의 幘巾이 어떤 樣式인지 무슨 色인지는 문헌 자료를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 없다. 幘巾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色 또한 여러 가지이며 幘巾의 용도 또한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幘巾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살펴보고 그것

들을 睫欏로서의 幘巾과 관련지어 논하여 보고자 한다.

幘巾에 대하여 찾아보면 方言, 四에 覆結謂之幘巾, 或謂之承露. 或謂之覆鬢, 皆趙魏之間 通語也. 「注」今 結籠是也. 라고 있다. 中文大辭典에서 이것을 頭巾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幘巾은 覆結, 承露, 覆鬢란 이름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말들은 趙魏之間에 通用되었던 것이다.

方言 注는 郭璞의 저술이므로 晉代에는 幘巾을 結籠이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覆結 또는 結籠에 보이는 結字는 髻로 읽으며 뜻도 髻와 같다. 漢書, 陵賈傳 尉佗 魁結箕踞 注에서 顏 師古는 結, 讀如髻. 라 하였다.

楚辭, 宋玉, 招魂의 激楚之結의 注에도 結, 頭髻也라고 있다.

위의 설명에서 보면 幘巾은 상투를 덮어 씌우는 상투 씌우개로서 一種의 頭巾名이다.

幘巾은 幘과 같은 의미로도 쓰였다. 玉篇에는 幘, 覆髻라 있다.

古代의 幘은 본래 頭髮이나 뿔을 싸서 덮는 巾이었다.

幘은 說文에 髮有巾曰幘, 幘 卽 巾也. 라고 있고 急就篇, 三, 冠幘簪髮結髮紐, 注에도 幘者髻髻之巾, 所以整髮髻也, 常在冠下. 或單著之. 라고 있다.

玉篇에는 幘, 覆髻也. 라고 있다. 玉篇의 覆髻는 方言의 覆結와 같은 의미이므로 幘巾과 幘은 같은 의미이기도 한다.

蔡邕 獨斷에 幘者古之卑賤執事不冠者之所服也, …元帝額有壯髮, 不欲使人見, 始進幘服之, 群臣皆隨焉, 然尙無巾, 如今半幘而已, 王莽無髮, 乃施巾, 故語曰, 王莽秃, 幘施屋, 冠進賢者宜長耳. 冠 愚文者短耳. 各隨所宜. 라고 있다.

中國 古代의 幘巾은 그 양식이 다양하므로 정확히 어떤 양식의 幘巾이 睫欏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幘巾은 覆結, 覆鬢, 覆髻 즉 상투 덮개의 의미로서 상투 巾이다. 따라서 幘巾은 織物類로 만들어진 頭巾이다. 睫欏로서의 幘巾은 白色으로 해석된다. 睫欏의 本來 의미가 白帽이기 때문이다.

1) 沈從文, 中國古代 服飾 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375.

앞에서 睫離는 接離이며 睫離와 接離는 白帽로서 이것은 白鷺縵란 別名도 가지고 있는 一種의 帽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駢雅에서는 睫離를 幘巾이라 하였는데 幘巾은 頭巾名이다.

辭海나 中文大辭典 등에서 接離를 頭巾 또는 頭巾名이라 하고, 頭巾과 頭巾名을 白帽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의 頭巾이란 말의 뜻은 卽 帽子之類를 의미하는 것이다.

駢雅에서 睫離 즉 幘巾也. 라고 하였는데 幘巾 또한 頭巾名이다. 先代의 學者들이 接離 즉 睫離는 白帽라고 설명한 것을 駢雅의 著者는 睫離 즉 卽 幘巾이라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IV. 接離에 대한 近來의 해석

아주 단편적이지만 接離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20세기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몇몇 학자들의 接離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瞿宣穎은 接離 蓋冠上羽也, 起於魏晉. 이라고 설명하였다²⁾. 이것에 대한 그의 논거 자료는 爾雅, 注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睫離 卽 接離는 冠上羽를 이르는 것이 아니었고, 白鷺의 羽毛를 사용하여 만든 白帽였다. 卽 接離는 帽名이었다.

接離는 帽名으로서 白帽라는 것이 이미 앞의 탐은 자료로 확증된 바이다.

따라서 接離가 冠上羽란 瞿宣穎의 설명은 옳지 않다.

接離에 대한 해석은 William의 저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屨, 離字 條에서 接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³⁾

A kind of white straw hat, the 接___ which was adorned with egrets plums and feathers, and hence called 白鷺縵 the white egret girdle, it was formerly worn by the people of Kiangnan.

즉 William은 接離를 白鷺의 羽毛로 장식된 一種의 白色 草帽라고 해석하였다. 이런 까닭에 接離는 白鷺縵이라 불려지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전에 江南人들이 착용하였던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

William은 白鷺縵를 白鷺縵이라 하고 그것을 "the white egret girdle"이라 번역하였다. 白鷺縵의 縵字는 William이 縵字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다. 康熙字典의 屨字條에도 爾雅注의 白鷺縵를 白鷺縵이라고 기록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縵字는 佩帶 卽 girdle의 뜻이 있다.

William의 接離에 대한 해석은 接離의 모양과 재료에 대하여 상상하여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接離를 一種의 白色 草帽라고 해석한 William의 接離에 대한 해석은 소위 草帽 卽 草笠 또는 席帽에 여러 가지 羽毛장식을 한 것을 연상시킨다. 그가 接離를 A kind of white straw hat 라고 해석한 근원은 接離의 의미가 白帽이고 屨字의 여러 同音 同義字 가운데는 屨, 離, 離字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글자들은 植物과 관계가 있는 글자들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白鷺縵의 縵字를 縵字로 택하였기 때문에 白鷺縵가 아닌 白鷺縵이 되었고 縵字는 佩帶 卽 girdle의 뜻이 있으므로 그것을 "the white egret girdle"이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白鷺縵 대신 白鷺縵이란 말의 紐帶는 白鷺의 羽毛를 가지고 草帽의 一部, 예를 들면 帽頂이나 帽前 또는 帽兩邊을 장식한 帽子를 연상시킨다. 白鷺縵란 말의 뜻은 帽體 전부가 白鷺의 羽毛로 덮여 있어 그것은 마치 白鷺縵 卽 白鷺의 首毛 같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接離의 다른 繆를 찾아보면 接離는 帽體 全部가 白鷺의 羽毛로 만들어진 白帽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大韓漢辭典에서는 繆字를 흰담모자(白繆帽子)라고 설명하였다. 白鷺의 羽毛를 사용하여 만든 白繆帽子 즉 白鷺縵帽가 接離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白繆帽는 古代 西域의 여러 민족들이 많이 썼던 帽子이다.

古代 中國人은 白帽를 이미 漢代부터 써 왔었다.

2) 瞿宣穎, 中國社會史料 叢鈔, 甲集上冊, 1936, p.37.

3) S. W. Wells William,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Ayer, 1973, p.517.

그들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白帽을 만들어 썼었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白帽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 그 중에서도 白鷲의 羽毛를 사용하여 만든 白帽을 睫屨, 接離, 또는 白鷲絨라 하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接離는 白帽란 뜻 외에도 幕羅의 뜻이 있다.

玉篇에서 離를 幕羅라고 설명하였다. 正字通에서도 離, 障面具也, 婦人出, 必擁蔽其面, 男子亦用之. 라고 설명하였다.

才物譜 卷之二 人譜一 女 條에서도 正字通의 설명과 같은 내용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 接離 : 婦人出以接離擁蔽其面, 男子亦用之.
- 睫屨 : 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玉篇, 正字通, 才物譜의 離에 대한 해석은 接離가 白帽란 앞에서의 해석과 다르다. 玉篇의 離字 해석에서 離를 幕羅라고 한 것은 離字는 幕羅란 말에 들어있는 글자로서 接離의 離字와 幕羅의 離字가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생긴 의미, 해석일 것이라고도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接離가 面衣란 의미를 가지된 더 근원적인 원인은 接離란 말과 類音이면서 面衣란 의미를 가진 접 幘屨(施)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믿어진다.

接離와 幘屨는 아주 비슷한 음價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白帽의 의미인 接離를 面衣인 幘屨와 混同하여 接離를 面衣의 의미로도 사용하였다고 해석된다.

接字와 幘字는 똑같은 *sha*⁴음과 *chieh*음을 가지고 있으며 麗¹와 屨²는 類音이다.

幕羅는 幕唯 또는 幕羅라고도 쓰인다. 이 말은 아랍어 *maqna*'를 漢語로 음譯한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障面之具에는 여러 가지 다른 크기의 것들이 있고 나라에 따라서 그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것들 중에서 *maqna*'는 머리부터 全身을 障蔽하는 가장 큰 종류의 障面之具에 속한다. 沈從文도 玉篇과 正字通의 接離에 대한 내용을 따랐다. 卽 沈從文은 北朝時代의 婦인들이 착용하였던 一種의 全身 籠罩衣의 方稱⁴⁾이 接離라고 하였다.

그러나 接離에 대한 沈從文의 설명은 불분명하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마치 接離는 hooded cloak 또는 hooded mantle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 같이 玉篇에서 離는 幕羅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面衣로서의 接離는 hood가 붙어 있는 옷이 아니다.

V. 高句麗의 接離

고구려의 接離에 관한 자료는 翰苑 蕃夷部 高麗條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高麗記 云 其人亦造錦 紫地纈文者爲上 次有五色錦 次有雲布錦 又有造白疊布 青布而尤佳 又造帶日. 華言接離其毛卽鞞鞞豬髮也.

위의 자료에 의거하면 高句麗人也 接離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그들은 接離를 만드는 재료로 鞞鞞豬髮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鞞鞞豬髮이란 鞞鞞產 豬髮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鞞鞞은 高句麗의 北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였으므로 高句麗에서는 鞞鞞에서 產出되었던 豬髮을 수입하여 接離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高句麗인이 鞞鞞 豬髮을 接離를 만드는데 사용한 것은 그것을 쉽게 구하여 쓸 수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거나 그것의 品質이 高句麗產 豬髮보다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三國志 魏志 東夷傳 挹婁條에 의하면 鞞鞞인은 오래전부터 돼지 기르기를 하여 그 고기를 먹고 그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겨울에는 돼지 기름을 몸에 발라서 風寒을 막았다고 한다. 北史 勿吉國傳에도 男子 衣豬皮裘, 頭插虎豹尾. 라고 있다. 鞞鞞은 古代에는 肅慎이라 불렸고 漢代에 挹婁 後魏時代에 勿吉, 隋 唐代에 鞞鞞이라 불렸던 나라이다.

高句麗인이 豬髮을 接離의 재료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朝鮮時代의 馬尾笠같이 豬髮을 가지고 짜서 接離를 만들었다는 뜻인지, 豬髮을 다져서 털을 만들어 接離를 만들었다는 뜻인지, 또는 다른 재료로

4)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141.

만들어진 帽子 들 위에 豬鬃을 씌워서 接籠를 만들었다는 뜻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接籠가 白毳帽子라는 한가지 설명에 따르면 鞣鞞豬鬃로 만들었던 高句麗의 接籠는 豬鬃을 다져서 만든 覆帽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韓苑의 高句麗 接籠에 대한 기록은 朝鮮時代에 豬毛를 帽子의 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병거지와 豬毛笠 또는 氈笠을 상기시킨다. 우리나라에서 豬毛를 帽子의 재료로 사용한 역사가 高句麗 時代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병거지, 豬毛笠, 白氈笠 등은 豬毛를 다져서 만든 것이다.

接籠의 籠字는 여러 글자로 쓰이는데 그 중에는 籠字가 있었다.

이 籠字는 白毳帽子의 의미이므로 接籠의 몇 가지 뜻 가운데서 高句麗의 鞣鞞豬鬃 接籠는 帽名으로서의 白帽 卽 白氈帽인 것이다. 高句麗에 鞣鞞豬鬃로 만든 氈帽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짐승털로 만든 氈帽도 있었다는 것을 傍證하기도 한다. 氈帽은 尖頂帽, 圓頂帽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었다. 그 중에서 尖頂帽은 中亞, 西域一帶에서 流行했던 樣式이었다. 尖頂帽은 遊牧民族 帽冠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白氈帽은 古代로부터 西域 遊牧民族이 日常的으로 머리에 썼던 一種의 帽子이다.

漢代 前後부터 隋唐代에 만들어진 龜茲 石窟壁畫의 本生故事中 龜茲 供養人像에는 白色捲檐尖頂帽을 쓴 人物들이 보인다.

克孜爾 石窟壁畫의 耕作圖에 보이는 二人의 人物像도 白色尖頂帽을 쓰고 있다.

白氈帽을 썼던 西域諸國의 예를 문헌 기록에서 들면 다음과 같다.

唐書, 黠戛斯傳에 諸下皆帽白氈, 喜佩刀礪, 라고 있다.

慧超의 五天竺國傳에도 從大食以來 並是胡國, 卽安國, 曹國, 史國, 石國, 米國, 康國…… 衣著 白疊衫 褲帶及 皮裘…… 康國並剪鬚髮 愛戴白氈帽子.

黠戛斯는 種族名으로서 卽 啓耳基茲人(Kirghizes)을 가리킨다. 그들은 突厥로부터 나온 種族이다.

黠戛斯는 葉尼塞河 上流에서 일어났다.

漢 時代에는 匈奴 西北 丁今西 쪽에 살았다. 唐 中

世에는 回紇을 逐出함으로써 杭愛에 南遷하여 阿爾泰兩山の 땅에 이르렀다.

唐初에 結骨, 居勿, 紇骨, 紇吃斯라고도 불렀고 後에 黠戛斯라고 바뀌서 불렀다.

元代에는 이들을 吉利吉思라 불렀고 이들은 蒙古에 속하였었다. 그들은 지금은 中央아시아에 살고 있다.

白帽로서의 高句麗의 接籠가 어떤 형태의 帽였는지는 韓苑의 기록에서는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기록에서도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다.

高句麗 古墳벽화와 인물상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冠帽중에는 몇 가지 종류의 白色 冠帽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들 가운데서 圓頂形帽이라고 할 수 있는 白帽을 쓴 人物像은 雙楹塚羨道 男子立像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한가지 형태의 白帽은 長川 제 1호분의 佛教供養圖에 양산을 받쳐 쓴 婦人 앞에서 있는 男子가 쓴 白帽이다. 이 男子는 白色 三角形帽을 쓰고 있는데, 三角形의 帽體가 3층으로 되어있는 특이한 것이다. 이것은 高句麗의 白帽에 三角形帽이 있었다는 귀중한 자료이다.

소위 折風이란 高句麗의 帽도 弁形帽이다. 그러나 折風은 長川 제 1호분 佛教供養圖에 보이는 男子가 쓴 三角形 白帽와는 그 樣式이 다르다.

이 두가지 帽子는 三角形 帽子인 점은 공통적이지만 그 樣式은 서로 다르다.

折風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白帽로서의 高句麗의 接籠는 一種의 弁形帽에 속하는 것이지만 鞣鞞豬鬃을 사용하여 만든 白氈帽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折風形에 가까운 弁形인지 아니면 長川 제 1호분 男子像이 쓰고 있는 것과 가까운 弁形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睫籠는 白帽 卽 白氈絨란 의미 외에도 幘巾이란 의미가 있었다.

幘巾은 覆絛, 覆髮, 結籠으로서 상투뒀게 또는 상투뒀우게 이므로 상투가 보이지 않도록 머리를 덮는 頭巾의 一種이다.

高句麗 古墳벽화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中國式

幘巾類를 찾아 볼 수 있다.

水山里 玄室東壁 윗단의 主人과 臣下는 똑같은 모양의 中國式 幘을 쓰고 있다.

舞踊塚 主室 北壁 迎賓圖의 主人은 方形 白幘巾 卽 白接籬를 쓰고 있다. 같은 舞踊塚 玄室 東壁 歌舞圖의 말을 타고 있는 男子도 白幘巾을 쓰고 있다. 이 두 人物像이 쓰고 있는 白幘巾 卽 白接籬는 四角形의 小幘巾으로서 幘巾 꼭대기쪽 平面부분의 끝을 赤色으로 線을 둘러 장식하였다. 또 같은 舞踊塚 前室 左翼 右壁 壁畫의 右側의 主人인 듯한 人物도 白色의 方形 白幘巾의 接籬를 쓰고 있다. 長川 第一號 墳 野遊, 狩獵圖의 人物像 中에서 위에서부터 둘째 줄 중앙에 서 있는 남자가 쓴 것도 白幘巾으로서 앞에서 본 人物들이 쓴 方形 白幘巾과는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이는 幘巾이다. 이 男子像도 바로 오른쪽 婦人像과 함께 다른 人物들보다 크게 그려져 있어서 그림중에서 主人公이거나 중요한 人物로 보인다. 또한 三室塚의 行列圖 第一室 南壁에 11명의 行列人物 中 앞에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 男子는 方形 白接籬를 썼다. 두 번째 男子와 세 번째 女자는 다른 人物들 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어 이 둘은 夫婦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舞踊塚, 三室塚, 長川 第一號墳의 人物像들은 共通의 모든 중요한 人物들이거나 또는 主人 아니면 主人公들이므로 보인다.

白幘巾은 輯安 五塊墳群 第四號墳 乘鶴仙人圖의 仙人이 쓰고 있는 冠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方形 白幘巾은 漢代 畫像石의 人物像이 쓰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어서 그것은 高句麗人의 固有한 冠帽가 아니라 中國에서 高句麗로 流入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障面具 卽 幕籬의 의미로서의 接籬에 대하여는 어떤 기록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夫餘에 面衣가 있었고 中國과 몽고에도 面衣가 있었으므로 高句麗에도 面衣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VI. 結 論

이상과 같이 接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규명하고자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론에서의 接

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여 정리하고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接籬란 말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接籬의 한가지 뜻은 帽名으로서 白帽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接籬는 睫籬이며 또한 白鷺絨란 別名도 가지고 있었다. 白鷺絨란 接籬의 別名은 白鷺의 羽毛를 사용하여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接籬는 白絨으로 만들어진 白絨帽子 卽 白氈帽로서 白接籬를 의미한다.

接籬는 晉時代인들이 애용하였고 널리 流行하였던 白帽였다.

接籬의 또 한가지 뜻은 幕籬 또는 障面具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接籬는 北朝時代의 婦인들이 사용하였던 全身籠障衣의 方稱이었다.

接籬는 또한 幘巾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接籬는 白帽, 幕籬, 幘巾이란 각기 다른 의미 중에서 鞞鞞猪鬃로 만들어진 高句麗의 接籬는 帽名으로서의 白帽 卽 白猪氈帽이다.

그러나 帽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猪氈으로 만들어진 高句麗의 接籬가 어떤 형태를 가진 帽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기본적으로 弁形이거나 또는 弁形에 가까운 圓頂 弁形帽을 것으로 推定된다.

高句麗 古墳벽화의 人物像이 쓰고 있는 冠帽 中에는 幘巾의 의미인 白接籬가 발견되었다. 白幘巾 卽 白接籬는 四角이진 것, 분명하게 四角이 지지 않은 것 등이 있었지만 그것들의 크기는 머리 전체를 덮은 것이 아니라 머리 中央에서 상투를 덮어 씌운 머리 쓰개였다. 白幘巾을 쓰고 있는 인물상들은 그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가 높거나 귀한 인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接籬는 白帽, 幘巾, 幕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中國 古代服飾 관련 用語이다. 接籬는 高句麗에도 流入되었었는데 高句麗에서는 白帽와 幘巾의 의미로서의 接籬가 있었다. 四角 白幘巾 接籬는 中國 漢時代에 있었던 것으로서 高句麗 古墳벽화에서도 같은 모양의 것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四角 白幘巾은 中國에서 高句麗로 流入된 것이 확실하다.

白氈帽의 유행은 中亞西域 帶뿐만 아니라 中國 高句麗에 까지 널리 퍼졌던 국제적 유행 추세였던

것이다.

參考文獻

- 瞿宣穎 (1936). *中國社會史料叢鈔*. 台北：商務印書館.
- 金基雄 (1989). *고구려 고분벽화*. 서울：瑞文堂.
- 金鍾烈 廣解大玉簪. 서울：大城出版社, 1976.
- 金銀玖 (1995). “折風の 研究”. *服飾文化研究*, 제 3권 제 1호.
- 李肖永 (1995).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烏魯木齊：新疆人民出版社.
- 이은창 (1978). *한국 복식의 역사*. 서울：세종대왕 기념사업회.
- 上海市戲曲學校 (1981). *中國服裝研究組 編著. 中國服飾五千年*. 香港：商務印書館 分館.
- 宋書
- 沈從文 (1981). *中國古代服飾 研究*. 香港：商務印書館 分館
- 張三植 (1980). *大漢韓辭典*. 서울：進賢書館.
- 朝鮮畫報社 (1986). *高句麗 古墳壁畫*. 東京：朝鮮畫報社.
- 中文大辭典 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台北：中國文化研究所, 中華民國 57年.
- 池內宏；梅原 末治. *通溝*. 日滿文化協會. 昭和 15年. 晉書
- 林 巳奈夫. *漢代の文物*. 京都：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昭和 51年.
- William, S. W. Wells (1973).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Ayer.